

# 베이비부머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은임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 Effects of Participatory Motives in Lifelong Learning on Life Satisfaction in the Retirement-To-Be among Baby Boomer Generation: Mediated Effects of Self-Efficacy

Eun-im Kim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for Human Creativity, Ho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년기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이면서 은퇴예정자 3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26, AMOS 26.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목표지향성, 학습지향성, 활동지향성은 모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학습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목표지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목표지향성, 학습지향성, 활동지향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ticipatory motives in lifelong learning 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retirement-to-be member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The study also sought to gather fundamental data to facilitate the re-examination of their life in old age. This was don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ted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participatory motives and life satisfaction. A research survey was conducted on 373 retirement-to-be member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6 and AMOS 26.0 softwa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goal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activity orientation, which are the participatory motives in lifelong learning, significantly showed a positive impact on self-efficacy. Second, self-efficac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activity orientation, which are participatory motives in lifelong learning,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goal orientation did not show any such significant impact. Fourth, self-efficacy showed significant mediated effects across all parameters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articipatory motives in lifelong learning. These parameters included goal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activity orientation. The study results thus offer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the focus areas of lifelong learning that will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Keywords** : Baby Boomer, Lifelong Learning, Participatory Motive,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Eun-im Kim(Hoseo University)

email: gold7014@naver.com

Received May 10, 2023

Accepted July 7, 2023

Revised June 5, 2023

Published July 31, 2023

## 1. 서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노인교육, 즉 노인 평생교육 참여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령사회를 내다보고 있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1].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지속적으로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거의 절반 수준이 고학력(대졸 학력)의 인적자원으로서, 사회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욕구도 역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는 자신의 노화 수준을 예측하고 미흡한 부분을 평생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4].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전 시대의 노인과는 다르게 자신이 평생 추구해 오던 일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노력한다[2]. 늙고 병약해지더라도 요양원에서 무리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삶의 만족을 위한 사회활동을 추구하려 한다[3]. 즉, 평범하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노인 세대 이전의 삶에서 이루지 못한 삶의 과제들을 은퇴 이후에 개인의 학습을 통해 제 2, 또는 제 3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루어내고자 한다.

한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생애과정 가운데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므로 은퇴 후의 인생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과정은 매우 중요하다[4]. 즉,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기주도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생교육의 모델과 프로그램은 개인의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삶의 활력과 생동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뿐 아니라 개인의 참여 동기에 따라 그 학습에 대한 성과와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학습의 참여동기를 통해 느끼는 만족은 정서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삶에 대한 지속적인 원동력을 줄 수 있다[5,6].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 참여동기에 대한 이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이후의 삶에 관하여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동기를 살펴보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령사회에서 노인 문제를 사회자원으로 환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7].

한편 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의 특성상 자신이 원하는

학습환경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습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 학습자가 학습에 대하여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이를 스스로 해결하여 이겨내는 힘을 말하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베이비부머 세대와 같이 신노년기에서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건강 증진, 성공적노화, 노화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10-12]. 즉, 노인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개인의 건강 및 사회적·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므로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다[13].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신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에서의 평생교육의 동기에 관한 연구 중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선행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내적 성장과 노년기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평생교육 참여동기

평생학습의 참여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혜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분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학습의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동기는 교육·학습 성과(만족도, 성취도, 중도탈락률, 몰입정도)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인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14]. 또한, 참여동기 유형별 학습자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교육방법, 교육내용, 강사 등이 주요 변인이라고 하였으며[15], 학습동기와 교육 참여의 경우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8].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습프로그램 참여동기는 학습자가 교육에 참가하도록 하는 이유를 의미한다. 이때 동기란 모든 행동에 대해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행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역할 수행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정서를 일정 수준 즉, 활성화될 때까지 끌어올려 실시하고자 하는 과제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기란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그 행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다[15].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많지는 않으나, 몇몇 실증적인 문헌들에서 Houle(1961)의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이 타당하게 측정되고 있다[19]. 즉, 평생교육의 3가지 참여동기 유형이 모두 존재하고 구분된다는 점이 양적 조사 결과 밝혀졌다[20,21]. 특히 Houle의 유형을 조사하는 측정 문항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연구마다 차별적으로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 3차원으로 구분되어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 Houle의 유형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의 경우,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이나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령, 평생교육 참여비용[21]이나 평생교육 참여기간, 소득, 성별[22], 생활만족도, 삶의 변화, 교육만족도[20,22], 그리고 노화와 자아존중감[22] 등이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관계됨이 보고되었다.

즉,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평생교육의 만족이나 삶의 변화 등 평생교육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포함 다양한 계층의 성인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도 평생교육의 만족이나 개인적 특성이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사하였다[23-25].

## 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되며 개념의 정의 또한 다양하다[26].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대표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27],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28].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전반적 상황, 또는 경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 및 평가로 정의하며[29,30], 삶의 질과 만족도를 유사한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31],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가장 유용하고 대표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삶의 만족도이기[32], 삶의 질과 만족도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신체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수동적인 시기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능동적인 시기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삶의 만족도는 노년기 삶의 질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33].

##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의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노력이 지속되는데 요구되는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34].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능력에 관한 판단으로 정의하였는데[35], 즉,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관한 개인의 판단이자, 특정한 행동을 수행 가능한가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결과 값을 도출해 내는데 필요한 양식과 행동들을 수행하고 인간의 동기, 사고, 행위 등을 유보하거나 결정하는 데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단 및 행동을 수행한다. 또한,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개인 능력에 관한 개념으로 노인의 인지적, 주관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의 척도로서,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 또는 행동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척도는 달라질 수 있다[36]. 따라서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성취 욕구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하여 신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우울감 해소 및 주관적인 행복감이 증가한다[37].

## 2.4 선행연구

먼저,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38].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년여성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39]. 또한 중년여성이 평생교육 참여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했을 때,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0].

한편,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선택하는 행동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므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40,41]. 즉,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직접적인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왕룡과 서재복(2020)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참여동기인 활동지향, 학습지향, 목표지향의 동기는 삶의 질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이 있음을 밝혔고, 참여동기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42]. 강상원(2017)은 공공 체육 복지 서비스에 참여한 일반 성인 남녀의 참여동기인 내적, 외적 동기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43], 박영금과 서재복(2020)은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삶의 질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사실과 참여동기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을 밝혔다[56].

이와 같이 평생교육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간에는 모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H1: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유

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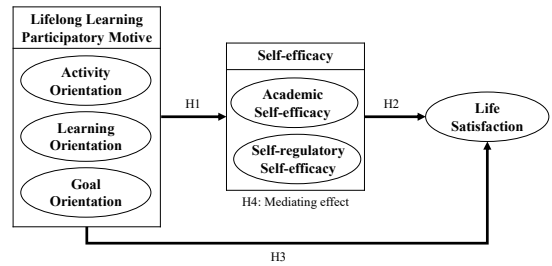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이면서 은퇴예정자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를 위해 해당 평생교육기관의 담당자와 일정, 방법 등을 논의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평생교육 기관에 직접 설문지 배부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총 400부 중 385부를 수집하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미응답자 12부를 제외한 373부를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164명(44.0%), 여성은 209명(56.0%)으로 나타나 여성이 더 많은 분포를 보였고, 연령은 59세~61세가 139명(37.3%), 62세~64세 132명(35.4%), 65세~67세 102명(27.3%)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으로는 100만원 미만 58명(15.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20명(32.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0명(21.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1명(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9명(7.8%), 500만원 이상 35명(9.4%)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교육기관의 유형으로는 50+센터가 224명(60.1%), 지역주민센터 48명(12.9%), 평생교육시설 101명(27.1%)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 81명(21.7%), 6개월 이상~1년 미만 82명(22.0%), 1년 이상~1년 6개월 미만 67명(18.0%), 1년 6개월 이상~2년 미만 49명(13.1%), 2년 이상~2년 6개월 미만 45명(12.1%), 2년 6개월 이상 49명(13.1%)으로 나타났다.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1개 210명(56.3%), 2개 121명(32.4%), 3개 38명(10.2%), 4개 이

상 4명(1.1%)으로 응답되었으며, 응답자의 최종학력으로 는 고등학교 이하 209명(56.0%), 대학교 이상 164명 (44.0%)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에 대한 응답으로는 1 명이 48명(12.9%), 2명은 154명(41.3%), 3명 111명 (29.8%), 4명 44명(11.8%), 5명 이상 16명(4.3%)으로 응답되었다.

### 3.3 측정도구

#### 3.3.1 평생교육 참여동기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Houle(1961)의 연구에서 분류 한 목표지향 동기와 활동지향 동기, 학습지향 동기 등의 3가지 지표[19]를 번안하여 사용한 장희영(2016)의 연구 에서 사용한 12개의 참여동기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44]. 목표지향 동기는 수료증이나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 서, 내가 맡은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싶어서, 직업 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지향 동기는 단지 학문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학습을 통한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 해서, 배움을 통해 지속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활동지향 동기의 경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주위 사람들과 공동 관심 사에 관해 대화하고 싶어서, 또는 직장이나 가정 외의 사 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목적 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평생교육 참여동기 측정도구는 목표지향성(4문항), 학습지향성(4 문항), 활동지향성(4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생교 육 참여동기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평생교육 참여동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목표지향성 .842, 학습지향성 .811, 활동지향성 .767, 참여동기 전체 .874로 나타났다.

#### 3.3.2 삶의 만족도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Diener 외(1985)가 개발하고[45], 조명한, 차경호(1998)가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46]. 이 문항은 '나의 생활여건은 아주 좋다'와 '대체로 나의 생활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비슷하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 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854로 나 타났다.

#### 3.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 외(1982)가 개발한 SES (Self Efficacy Scale) 검사지[47], Pintrich와 Groot(1990) 의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검사지[48]를 바탕으로 김아영(2003) 이 수정한 검사도구[49]를 주영주와 하영자(2005)가 성 인 학습자에 맞게 개발하였다[50]. 본 연구에는 선행연구 에서 개발한 자기효능감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8문항)과 자기조절 자기효능 감(5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전혀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 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기 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학업적 자 기효능감 .841,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886, 자기효능감 전체 .897로 나타났다.

###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 AMOS 26.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생교육 참 여동기,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CFA)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수 간 관련성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평생교 육 참여동기, 삶의 만족도,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고, 이들 변 수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평생학습 참여동기의 활동지향 성, 학습지향성,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254.867$ ,  $df=138$ ,  $GFI=0.929$ ,  $AGFI=0.902$ ,  $CFI=0.965$ ,  $IFI=0.965$ ,  $RMR=0.024$ ,  $RMSEA=0.048$  등의 적합도가  $GFI$ ,  $AGFI$ ,  $CFI$ ,  $IFI$ 는 0.8 이상,  $RMR$ 와  $RMSEA$ 는 각각 0.05 이하, 0.08 이하로, 모든 지수들이 권장수준에 대부분 부합하였다[51].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 $\lambda$ )에 관한 기준을 0.5 이상을 양호한 것으로 하였으며, Table 1과 같이 요인부하량( $\lambda$ )이 0.590에서 0.797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52].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beta$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Goal orientation	→ GO 1	.590	Fix	-	.890	.670
	→ GO 2	.634	.105	9.694***		
	→ GO 3	.656	.112	8.929***		
	→ GO 4	.670	.115	9.051***		
Learning orientation	→ LO 1	.760	Fix	-	.893	.677
	→ LO 2	.791	.069	14.343***		
	→ LO 3	.611	.069	11.116***		
	→ LO 4	.735	.066	13.420***		
Activity orientation	→ AO 1	.711	Fix	-	.896	.683
	→ AO 2	.769	.091	12.766***		
	→ AO 3	.797	.090	13.174***		
	→ AO 4	.712	.071	14.387***		
Self-efficacy	→ Academic	.796	Fix	-	.918	.849
	→ Self-regulatory	.783	.072	15.620***		
Life satisfaction	→ LS 1	.709	Fix	-	.915	.684
	→ LS 2	.736	.091	13.086***		
	→ LS 3	.719	.079	12.797***		
	→ LS 4	.739	.083	13.138***		
	→ LS 5	.774	.081	13.703***		

\*\*\* $p < .001$

####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평생학습 참여동기의 활동지향성, 학습지향성,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결과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평생학습 참여동기의 활동지향성, 학습지향성,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학습지향성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고( $r=0.598$ ,  $p < .01$ ),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은 목표지향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r=0.580$ ,  $p < .01$ ). 또한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활동지향성이 삶의 만족도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r=0.578$ ,  $p < .01$ ),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0.624$ ,  $p < .01$ ).

본 연구의 연구변인인 평생학습 참여동기의 활동지향성, 학습지향성,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응답범위는 1-5점 사이로 측정되었으며, 연구변수의 정규성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의 분석 결과 왜도는 0.071~0.510, 첨도는 0.073~0.992로 나타나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1].

Table 2. Correlation

Variables	1	2	3	4	5	6
1	1					
2	.538**	1				
3	.449**	.489**	1			
4	.550**	.598**	.489**	1		
5	.580**	.480**	.449**	.623**	1	
6	.506**	.472**	.578**	.590**	.624**	1
Mean	3.72	3.87	3.97	3.74	3.68	3.81
SD	.546	.586	.635	.505	.579	.588
skew	.071	-.091	-.510	-.123	.112	-.176
kurtosis	.145	.348	.992	.407	-.073	.326

$p < .01$

1: Goal orientation, 2: Learning orientation, 3: Activity orientation, 4: Academic self-efficacy, 5: Self-regulatory self-efficacy, 6: Life satisfaction

#### 4.3 가설검증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행하였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 관한 연구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Table 3과 같고,  $\chi^2$ ,  $GFI$ ,  $AGFI$ ,  $CFI$ ,  $IFI$ ,  $RMR$ ,  $RMSEA$ ,  $\chi^2/df$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

Table 3. Study model fit

$\chi^2(p)$	df	GFI	AGFI	CFI	IFI	RMR	RMSEA
327.002 ( $p=0.000$ )	142	.906	.874	.944	.945	.029	.059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표준화 계수를 Table 4에서 살펴본 결과,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성( $\beta=.516$ ,  $p < .001$ ), 학습지향성( $\beta=.315$ ,  $p < .001$ ), 활동지향성( $\beta=.203$ ,  $p < .001$ )은 모두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946$ ,  $p < .001$ ), 평생학습 참여동기 중, 학습

지향성( $\beta=.216, p<.05$ ), 활동지향성( $\beta=.272, p<.001$ )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평생교육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63, p>.05$ ).

Table 4.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beta$	S.E.	C.R.	P
Goal orientation	→	.516	.074	6.602***	.000
Learning orientation	→	.315	.048	4.511***	.000
Activity orientation	→	.203	.043	3.300***	.000
Self-efficacy	→	.946	.254	4.679***	.000
Goal orientation	→	.163	.152	1.274	.202
Learning orientation	→	.216	.083	2.233*	.026
Activity orientation	→	.272	.066	3.570***	.000

\*\*\* $p<.001$ , \*\* $p<.01$ , \* $p<.05$

다음 Table 5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에 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평생교육 참여동기 중, 학습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05$ ), 자기효능감에 대한 간접효과는 목표지향성, 학습지향성, 활동지향성 모두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효과도 유의수준  $p<.001$ 에서 모두 유의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습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목표지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Analysis result of indirect effect of self-efficacy through bootstrapping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Goal orientation	Life satisfaction	.163	.320	.488***	.000	.651***	.000
Learning orientation		.216*	.003	.298***	.000	.514***	.000
Activity orientation		.272***	.000	.192*	.010	.464***	.000

\*\*\* $p<.001$ , \*\* $p<.01$ , \* $p<.05$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에 관한 매개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Sobel-test를 실행하였고[53],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성(Z-value=3.817,  $p<.001$ ), 학습지향성(Z-value=3.228,  $p<.01$ ), 활동지향성(Z-value=2.686,  $p<.01$ )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6. Analysis result of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rough Sobel-test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Goal orientation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3.817***	.000
Learning orientation			3.228**	.001
Activity orientation			2.686**	.007

\*\*\* $p<.001$ , \*\* $p<.01$ , \* $p<.05$

##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목표지향성, 학습지향성, 활동지향성은 모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명희와 박영금(2020), 박민희와 정민(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38.39)로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기효능감 향상은 결국 노인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평생교육 학습에 참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평생교육 참여동기를 촉진시키는 방안들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종운과 허만세(2019)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40].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생교육 기관의 교수자는 학습자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강의에 도입한다면 학습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학습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목표지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다양한 변화와 개인적 자원, 사회적 수용, 도전과 같은 내·외적 지원이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고전 연구결과[54]와 맥락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임옥자와 정민(201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22].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평생교육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 및 개선 또는 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 활동을 통한 사회화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큰 문제점인 부정적인 요소들을 완화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베이비부머 세대 중 은퇴예정자의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평생교육 참여동기인 목표지향성, 학습지향성, 활동지향성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목표지향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즉,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욱 더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노인에게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행동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55],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학습자에게 심리적, 신체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위한 필요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설명함으로써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기효능감은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능동적인 신체활동의 참여와 정신적인 즐거움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 간의 어울림을 지지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평생교육 참여의 효과는 자기효능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피드백되어지는 것이다[34]. 따라서 이러한 평생교육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전문성 있는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교육 참여동기와 삶의 만족도를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위해 인지 개발 형성 프로그램과 정서 및 심리작업치료에 대한 콘텐츠 개발의 실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함으로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사회에서 평생교육 학습은 내적 성장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 자신감 등으로 사회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감소 효과가 있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을 위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부각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단순히 그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아닌, 삶의 만족도라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에 대한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앞서 학습자 스스로의 수용적인 태도와 자기완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인식에 대한 변인을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 역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변인과 상호인과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상호인과성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수를 추가하여 보다 정교한 양적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노인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 References

- [1] S. H. Kwon, Y. S. Hyun, "A mediating effect of



-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between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aging of baby boomer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7, No.2, pp.167-199, 2021.  
DOI: <http://dx.doi.org/10.26857/JLLS.2021.5.17.2.167>
- [2] I. U. Song, S. J. Won, “Self-rated health,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s in Korea: Multiple group analysis according to their work statu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6, pp.349-357, 202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6.349>
- [3] J. H. Lim, *A proposal route for baby-boom generation to enter social enterprise*.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of Korea, 2020.
- [4] J. N. You, S. H. Park, “The longitudinal effects of integrated preparation for later life on life satisfaction of baby boomers”, *Korea Academy of Care Management*, No.46, pp.121-151, 2023.  
DOI: <http://dx.doi.org/10.22589/kaocm.2023.46.121>
- [5] K. S. Kim, “The effect of the elderly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0, pp.92-99, 2019.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9.20.10.92>
- [6] T. J. Kim, J. S. Jun,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happiness, social support, learning flow, and ego-resilience of the elderly participated in lifelong learning programs”,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11, No.3, pp.117-132, 2015.  
DOI: <http://dx.doi.org/10.35637/klehrd.2015.11.3.005>
- [7] Y. H. Yang, K. H. Lee, “Needs analysi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on successful aging”,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17, No.2, pp.61-84, 2021.  
DOI: <http://dx.doi.org/10.35637/klehrd.2021.17.2.003>
- [8] Y. H. Kwon, S. H. Byun, “The influence of the participation in elderly job project upon job satisfaction,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2, pp.689-704,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2.49>
- [9] H. L. Choi, I. U. So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the elderly’s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6, pp.246-255, 202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6.246>
- [10] S. M. Kim, K. C. Lim, J. H. Lee,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for physical activity, perceived health status, attitudes toward aging, ego-integrity and overall physical activity in community-dwelling older Koreans”,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9, No.3, pp.218-227, 2022.  
DOI: <http://dx.doi.org/10.5953/JMJH.2022.29.3.218>
- [11] S. T. An, J. Y. Lee, “Older adults’ health promotion via mobile applicati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tigm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63, No.2, pp.113-142, 2019.  
DOI: <http://dx.doi.org/10.20879/kjics.2019.63.2.004>
- [12] S. O. Choi, “Effects of leisure activity in elderly welfare center on successful aging: The mediator effect of self-efficacy and moderator effect of social support”, *Crisisonomy*, Vol.15, No.11, pp.89-100, 2019.  
DOI: <http://dx.doi.org/10.14251/crisisonomy.2019.15.11.89>
- [13]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Low, 2017.
- [14] Y. S. Kim, “Review and critique of adult learners’ motivation research”,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15, No.1, pp.31-62, 2012.  
DOI: <http://dx.doi.org/10.22955/ace.15.1.201202.31>
- [15] K. H. Lee, *A study on learner’ motive of participation and satisfying degree in the program for lifelong education*. Doctoral Thesis, Daegu University of Korea, 2003
- [16] N. Y. Kim, Y. J. Jo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arner motivation, program, organizational support, interaction, flow and learning outcome in cyb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26, No.2, pp.53-82, 2010.  
DOI: <http://dx.doi.org/10.17232/KSET.26.2.53>
- [17] J. M. Lee, S. I. Yoon, “The effects of learners’ motivation, teaching presence, learning flow on learning outcomes in cyber univers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2, No.1, pp.141-166, 2011.  
DOI: <http://dx.doi.org/10.15753/aje.2011.12.1.007>
- [18] W. J. Choi, J. G. Shin, “The study on relationships of learning situation,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e-learning effect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13, No.2, pp.87-104, 2011.  
DOI: <http://dx.doi.org/10.18211/kjhrdq.2011.13.2.005>
- [19] C. O. Houle, *The inquiring mind: A study of the adult who continues to learn madison*. Wisconsin, WC: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 [20] J. S. Kim, W. K. Lim, “An impact on the relationship among elderly’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5, pp.179-189,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5.179>
- [21] M. S. Jeon, S. H. Song, “Effects that the typ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influences i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life-chang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8, pp.438-448,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8.438>
- [22] O. J. Im, M. Jeong, “Type of learn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older adults who join in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4, No.1, pp.169-189,

- 2015.
- [23] S. H. Park,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effect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on of the lifelong learning in the alienated class with higher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17, No.2, pp.65-92, 2011.
- [24] S. G. Lee, Y. W. Kee, "A study on motives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1, No.2, pp.29-54, 2005.
- [25] U. S. Choi, "An analytical study on conditions and nature of adult learners' participation for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2, No.1, pp.1-35, 2006.  
DOI: <http://dx.doi.org/10.26857/JLLS.2006.05.2.1.1>
- [26] J. Y. Jin, K. S. Ha, "A study on the effects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d on the satisfaction of the lif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45-57,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45>
- [27] Y. M. Lee, "The study on the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elderly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No.62, pp.35-57, 2013.  
DOI: <http://dx.doi.org/10.21194/kjgsw..62.2013.12.35>
- [28] C. H. Han, *Structural model of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Doctoral Thesis, DaeguHaany University of Korea, 2010.
- [29] S. K. Kang,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9, No.2, pp.629-643, 2009.
- [30] G. E. Matt, A. Dean,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elderly persons: Moderator effects of ag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pp.187-200, 1993.  
DOI: <http://dx.doi.org/10.2307/2137201>
- [31] O. G. Lee, *The influence of senior's performance of roles and satisfaction wit life on successful aging*. Doctoral Thesis, DaeguHaany University of Korea, 2017.
- [32] J. S. Lee, "The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the life satisfaction of poor disabled persons: Focus on registration disable persons of Gwang-Ju city in south korea",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Vol.16, No.1, pp.79-106, 2009.  
DOI: <http://dx.doi.org/10.17089/kgr.2009.16.1.004>
- [33] D. S. Ra, Y. D. Kim, "The impact of the elderly's sexual lif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No.52, pp.185-203, 2011.  
DOI: <http://dx.doi.org/10.21194/kjgsw..52.201106.185>
- [34] C. B. Park,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elf-efficacy,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participating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No.64, pp.709-717, 2016.  
DOI: <http://dx.doi.org/10.51979/KSSLS.2016.05.64.709>
- [35] A. Bandura,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4, No.3, pp.359-373, 1986.  
DOI: <http://dx.doi.org/10.1521/jscp.1986.4.3.359>
- [36] K. Y. Shin, J. U. Ko, "Influence of the elderly feeling of self-efficacy on preparation after retire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9, pp.255-267, 2017.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7.17.09.255>
- [37] I. S. Park, *The impacts of self-efficacy and awareness of aged life and retirement prepar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men and women*. Doctoral Thesis, Daegu University of Korea, 2015.
- [38] M. H. Lim, Y. G. Park,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adult learners' motivation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psychological empowerment, recognition of lifelong learning outcomes, and self-efficienc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3, pp.873-891,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23.873>
- [39] T. L. Kim,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Effect of Motivation to Participate of Online Lifelong Education Using YouTube on Learning Flow",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5, pp.527-541, 2022
- [40] J. W. Lee, M. S. Ho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8, pp.677-686,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imahs.2019.9.8.060>
- [41] H. I. Choi, I. U. So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the Elderly's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6, pp.246-255, 2020.
- [42] W. Long, S. J. Seo, "The Relationships between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Esteem,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Quality of Life of Chinese Elderl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8, No.2, pp.43-61, 2020.  
DOI: <https://doi.org/10.31352/jer.18.2.43>
- [43] S. W. ka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participation motive, physical health, emotion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sports welfare service participants*. Doctoral Thesis, Chungbuk University of Korea, 2017.
- [44] H. Y. Jang, *The effects of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ve motivation,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subjective happiness of middle and older adults*. Doctoral Thesis, Donga University of Korea, 2016.
- [45] E. Diener, R. Emmons, R. Larsen,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9, pp.1105-1117, 1985.

DOI: [http://dx.doi.org/doi.org/10.1207/s15327752ipa4901\\_13](http://dx.doi.org/doi.org/10.1207/s15327752ipa4901_13)

- [46] M. H. Jo, K. H. Cha, *Cross-country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Seoul: jipmoon, 1998.
- [47]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No.2, pp.663-671, 1982.  
DOI: <http://dx.doi.org/doi.org/10.2466/pr0.1982.51.2.663>
- [48] P. R. Pintrich, E. V. De Groot,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2, No.1, pp.33-40, 1990.  
DOI: <http://dx.doi.org/doi.org/10.1037/0022-0663.82.1.33>
- [49] A. Y. Kim, “Motivation in the classroo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7, No.1, pp.5-36, 2003.
- [50] Y. J. Ju, Y. G. Ha, “Motivation variables as predictors of learning effectiveness and job involvement”, *Educational Science Research*, Vol.36, No.2, pp.65-90, 2005.
- [51] H. S. Le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AMOS 24*. Seoul: Jibhyeonjae, 2017.
- [52] S. H. Hong, S. Jung, “Testing the interaction effects in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ories and procedur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21, No.4, pp.1-24, 2014.  
DOI: <http://dx.doi.org/doi.org/10.15284/kjhd.2014.21.4.1>
- [53]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doi.org/10.1037/0022-3514.51.6.1173>
- [54] J. W. Rowe, R. L.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Dell Publishing a Division of Random House, 2001.
- [55] J. Y. Yu, *dementia preventive behavior, self-efficacy and cognitive function in elderly*. Master’s Thesis, Ewhawomans University of Korea, 2016.
- [56] Y. G. Park, J. B. Seo,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Self-esteem,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Quality of Life for Adult Learn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1, No.4, pp.1575-1590, 2020.  
DOI: <https://doi.org/10.22143/hss21.11.4.111>

김 은 임(Eun-im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협성대학교(사회복지학석사)
- 2018년 8월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교육학전공 철학박사)
- 2018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노인교육, 청소년복지